



## 저지대 비전론

성인경

나는 방화범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난 20년 동안 청년 대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잠언 29:18의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라는 말씀에서, “목시”를 KJV(King James Version)는 “vision”으로 번역하는데, 이 목시 혹은 비전의 불꽃을 활활 태우기 위해 나는 라이타를 들고 동분서주해 왔다.

내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데 주로 사용한 라이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일명 “고지대론”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미답지론”이다. 거기다가 굳이 비전을 정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무비전론”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비전론에는 한계가 있고, 악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비전론을 따라가다가 자신의 비전에 혼란을 갖는 청년 대학생들을 나는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야망(ambition), 비전(vision), 재능(talent)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말한 세 가지 일반적인 비전론을 비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예수님을 비롯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새로운 비전의 패러다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지대로 가라”는 것이다.

### 1. 야망, 비전, 재능

먼저 비전에 대한 잘못된 예언들을 주의해야 한다. 예레미야 23:16에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목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도 잘못된 예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야망을 비전과 혼동하는 것이고, 둘째는 직업이나 재능을 비전과 혼동하는 것이다.

#### 야망과 비전

비전을 말한다면서 사실은 야망이나 꿈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W. S. 클라크의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Boys, be ambitious)”는 말을 “소년이여, 비전을 가지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독교인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경은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야망(ambition, 野望)은 이기적인 욕망의 꿈이다. 야망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자신의 행동뿐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이 등장하는 꿈을 꾸더니 3장에서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바벨론의 종교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반면, 비전(vision,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다. 비전의 목적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은 사람들과의 좋은 협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야망	비전
동기	이기적인 욕망의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적	자신의 영광과 명예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섬김
성취 방법	개인의 행동	좋은 협력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바벨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비전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었다. 감독관에게 처음 채식을 요청하였을 때는 거절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 1:15-16) 식습관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마침내 바벨론에서 일부 악법을 변화시키기까지는 37년 이상이 걸렸다. (다니엘 3:29)

### 비전과 재능

비전을 직업이나 재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직업이나 재능이 비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현재의 직업이나 재능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직업을 단지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직업은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유행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재능과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직업과 비교하는 것도 좋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이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마태복음 25:15-19, 참고: 에베소서 4:7-13,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 성경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전 라브리 간사인 김종철 변호사는 시장에서 말하는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차이를 아래

의 도표로 설명하였다.

	시장에서 말하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원천	자신의 노력	하나님이 주심
목적	자신의 필요를 채움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
주요 관심사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 윌버포스의 비전

비전을 올바르게 분별한 사람의 좋은 예는 영국의 정치가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이다. 윌버포스는 1785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의 인생이 크게 바뀐 것은 물론이고, 그는 평생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 하였다. 특히 윌버포스는 노예무역을 철폐하고 부패한 사회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비전을 가졌다. 그가 쓴 두 편의 글, 〈이 나라의 상류층 및 중산층 가운데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실제 종교관은 진정한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가?〉<sup>1)</sup> 그리고 〈범죄와 공중 부도덕 반대 선언〉<sup>2)</sup>은 윌버포스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경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 준다.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는 40년 이상이 걸렸다. 그는 우선 26년간의 정치 운동으로 1807년에 영국 의회로부터 〈노예 무역 금지법〉(Slave Trade Act 1807)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노예 무역이 금지되었을 뿐 노예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의 완전 철폐를 위해 계속 노력했으며, 1826년 건강 악화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계속 노예 제도 철폐 운동에 참여하여 마침내 1833년 〈노예 제도 철폐법〉(Slavery Abolition Act 1833)을 통과 시켰다. 윌버포스가 보여준 비전과 재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른다면, 죄 짓는 것을 제외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영적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직자나 선교사들의 사역만을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더럽고 부패한 정치계에 뛰어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 될 수 있다.

둘째,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직업과 비전은 다르다. 직업은 일생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직업과 비전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다. 윌버포스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비전을 가졌으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가가 되어야 했다.

### 일반적인 비전론들

#### 고지대론

고지대론(高地帶論)은 가장 인기 있는 비전론이다. 여기서 “고지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진출하

1) A Practical View of the Prevailing Religious System of Professed Christians, in the Higher and Middle Classes of this Country, Contrasted with Real Christianity (1829)

2) A Royal Proclamation against Crime and Public Immorality (1787)

고, 가능하면 주도세력이 되고, 가능하면 출세하고, 가능하면 성공하고, 가능하면 높은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큰일을 하는 것이다. 즉, 고지대론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의 최고 높은 지도층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비전론이다. 많은 지도자들, 특히 김동호 목사가 고지대론을 역설하곤 한다.

어느 분야든지 최고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지대에는 분명 할 일도 많고 죄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여 고지대에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바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고지대에 올라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될 수는 없다. 고지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고지대에 닿은 훌륭한 예로 요셉을 들 수 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은 꿈은 기근으로부터 가족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였다. 그러나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요셉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 해외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창세기 37:6-11) 그러나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은 물론이고 온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하였다. 요셉의 비전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고지대론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고지대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인생의 다른 가치들을 놓치기 쉽다. 고지대론이 제시하는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둘째, 고지대론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과 다르다. 물론 정직하고 진실 된 지도자들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스리는 것 보다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신 분이시다.

셋째, 고지대론을 따르다 보면 개인적인 야망이나 성공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착각할 위험이 있다.

## 미답지론

미답지론(未踏地論)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 분야를 개척하여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라는 비전론이다. 미답지론은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일,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 일을 해내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미답지론을 자주 권하는 분으로는 황병구 씨가 있다.

벤처업계에도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고지대에 오르는 것 못지않게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이미 있는 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며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미답지에 닿기 위해서는 고지대를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라기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미답지 개척에 목숨을 걸

고 수십 년을 투자해 주기를 소망한다.

미답지론을 충실히 따른 성경 속의 인물로는 갈렙과 야베스가 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였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4:12) 갈렙은 최선을 다해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다. 마찬가지로, 야베스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10)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넓혀 주셨다.

안타깝게도, 미답지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미답지론은 개인적인 모험 정신이나 도전적인 성격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혼동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둘째, 고지대론과 마찬가지로, 미답지론도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만끽하지 못하도록 억누를 위험이 있다. 게다가 미답지 개척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셋째, 제도적 한계와 개인적인 능력 차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답지를 개척할 수는 없다. 즉, 고지대론과 마찬가지로 미답지론도 소수에게 제한되기 쉽다.

#### 무비전론

무비전론은 고지대론이나 미답지론처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비전론에 반대하여 나온 이론이다. 비전을 부르짖는 일반적인 이론들은 헬렌 켈러가 말했듯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경이나 귀머거리가 아니라 눈이 있어도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무비전론에 따르면 특별히 비전을 가질 필요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된다.

물론, 무비전론의 목표도 다른 비전론들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고지대나 미답지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무비전론은 말한다. 내가 듣기로는 고려대학교 고 김인수 교수가 무비전론을 많이 권했다고 한다.

고지대를 정복하고 미답지를 개척하자는 야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무비전론은 반드시 필요한 성경적 비전론이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른다는 것은 아침 이슬처럼 순결한 원칙이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무비전론에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은 물론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수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무비전론에 따라 하나님께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었으면 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이다. 다윗은 느닷없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사무엘상 16:13)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으며 (16:21) 어느 날은 형들에게 떡을 배달하러 가던 길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다 (17:50)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18:1)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는 등 (18:27)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여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 (사무엘상 19:18 - 사무엘하 1:17)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유

다의 왕 노릇을 했으며 (사무엘하 2:4-11)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8:1-10:18) 과연 왕이 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낸 것이다.

그러나 무비전론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목적이나 역사의식이 없는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더라도 방향과 인도하심은 분명히 다르다. 역사 속을 살아가는 현재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

둘째, 다음의 말씀처럼 비전 없이 떠돌아다니며 허송세월할 우려가 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16)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지치면 이번에는 고지대론이나 미답지론처럼 지나치게 강한 비전론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

셋째, 믿음만을 강조하는 무비전론은 자칫 말뿐인 믿음이 될 수 있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믿음은 드러나야 한다.

### 3. 저지대 비전론

#### 개요

나는 요즘 고지대론도 아니고 미답지론도 아닌 제3의 비전론을 젊은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지대론(低地帶論)이다. “저지대로 가라”는 이 비전론은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고지대론이나 미답지론과 달리, 저지대론은 인간의 야망을 포기하고 어디든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그러나 무비전론과 달리, 저지대론은 비전 자체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눈에 띄는 위치에 오르는 것만이 비전은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도 비전이 될 수 있다.

저지대론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재능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이 아름답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상이 보기에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일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나 영향력으로 재능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도 없다. 누구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저지대론을 실천할 수 있다.

#### 저지대론의 장단점

저지대론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반드시 최고가 되지 않아도 좋다. 프란시스 웨퍼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사람은 없다.”

둘째, 자신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 앞에 놓인 사다리를 최선을 다해 오르면 되지, 남의 사다리를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셋째, 자신을 망쳐 가면서까지 지나치게 모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선불리 나아갈 위험이 적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함정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고지대나 미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질주의적이라느니, 비영적이라는 등 깎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고지대나 미답지의 비전과 달리 저지대의 비전은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시시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둘째, 저지대론은 고지대나 미답지를 포기한 사회 부적응자, 자격미달자, 실패자, 혹은 너무 순진한 사람들만의 비전으로 비쳐지기 쉽다. 자기를 낮추는 정신도 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전론, 위험을 싫어하는 무사안일주의로 오해받아서 안 된다.

셋째, 오늘날과 같이 성공지향적인 사회의 젊은이들에게는 저지대론이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저지대 비전론을 온전히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을 비롯한 세 명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

저지대 비전론의 궁극적인 모형은 예수님이다. 저지대론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정신이며,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는 정신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5-8)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 “에케노센 (ekenosen)”을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1)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것<sup>3)</sup>, 2)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 행사를 포기한 것<sup>4)</sup>, 3) 자신의 하나님의 대권적(大權的) 권능을 포기한 것<sup>5)</sup>, 4) 자신의 존엄과 주권의 표지(標識)를 포기한 것<sup>6)</sup>, 5) 자신의 하나님의 속성 즉 무소부재, 전지전능 등을 포기한 것<sup>7)</sup> 등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다. 아무튼 이 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가 가진 무엇을 “포기하셨다”는 것이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도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 1) 예수께서 종의 외적인 모습을 취하셨거나 종으로 가장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취하셔서 종이 되셨음을 의미한다<sup>8)</sup>, 2) 이사야 52:13-53:12에 나타난 “야웨의 종”의 개념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킨 것이다<sup>9)</sup>, 3) “종”은 11절에 나타난 고양된 그리스도이신 “주”와 대조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나타낸다<sup>10)</sup> 등

3) Plummer

4) Hendriksen

5) Lightfoot

6) Calvin

7) Forsyth, Mackintosh, Martin

8) Hawthorne

9) Martin, J. Jeremias, Lohmeyer

의 해석이 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는 말은 헬라어 “호모이오마티 (homoiomati)”를 번역한 것으로, 사람과 유사하게(similarity) 되었다거나, 사람과 동일하게(identity) 되었음을 강조한다. 죄가 없다는 점 외에는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음을 의미한다.<sup>11)</sup> 한 마디로 아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시사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27)

이처럼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의 정신이야말로 저지대 비전론의 원형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 하루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파괴하거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며, 자신의 명예와 성공만을 위한 야망을 버리는 것이다.

#### 전영창 교장의 십계

예수님을 따라 저지대 비전론을 가지고 산 사람은 매우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의 삶은 저지대 비전론의 모범이 될 만 하다. 선생의 전기와 <직업선택 10계>를 읽고, 오늘날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소개한다.<sup>12)</sup>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 아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은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비전론을 믿은 전영창 선생은 스스로 주류세력에 편입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장래가 보장되는 화려한 길을 포기하고, 당시에는 그야말로 “변두리”였고 “황무지”였던 허름하고 다 부서져 가는 거창의 시골 학교에 부임하였다. 수십 년

10) Renqstorf, Hawthorne

11) Kent, Lincol

12) 성소균, ‘내가 만난 전영창 교장’ [부.경교회사 연구] 제9호, 2007.7, p.107.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자기 아들딸처럼 길렀다.

그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참 선생이다. 그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고지대나 미답지에 도전하다가 낙오자나 실패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라”, “높은 곳만 쳐다보고 요행을 기다리지 말고 낮은 데로 먼저 가라”는 말로 진로지도를 하였다.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의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직업선택 10계>는 오늘날처럼 누구나 성공과 출세 그리고 돈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는 시대에 사는 청년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자기 버림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전달한 예이다.

공무원 이철수 씨

철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진로를 의논하기 위해 나에게 왔다. 그는 KBS나 MBC처럼 누구나 아는 일류 방송사나 대형 신문사의 기자가 되고 싶어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가장 낮고 죄가 많은 곳에서 섬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매스 미디어에도 충분히 죄가 넘쳐난다.”고 말했지만, 나는 “가능하면 더 낮은 곳을 생각해 보라.”고 조언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어빠진 직장은 과연 어디일까요? 청와대일까요? 군대일까요? 경찰이나 국정원일까요?

부르는 곳들이 많았지만, 철수는 용감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락한 직장을 선택하였다.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떤 여자도 그와 사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어떤 부모도 그에게 딸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받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예쁜 아내를 만나려면 아파트 키, 차 키, 사무실 키, 이렇게 세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다.

다행히 나중에 철수는 예쁘고 실력 있는 아내를 얻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들 중 한 곳에서 2년간 공부할 기회도 얻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은 매우 외로웠다. 열심히 일하느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지낼 시간도 별로 없었다. 그의 꿈은 흔히 말하는 성공신화라든지 동화 속의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그의 비전은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연상시킨다.

“나는 언젠가 전쟁을 일으킨 자들과 전쟁의 피해자들이 서울 타워 꼭대기에서 형제처럼 식탁을 마주하고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딸이 언젠가는 이념으로 판단 받지 않는 나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남북한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의 꿈이나 그의 삶을 그의 성공 여부나 업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갔으므로 그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 나는 철수가 그의 친구들처럼 성공만을 쫓아가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그는 단지 욕심으로 가득차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도록 철수를 사용하셨다.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철수처럼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철수처럼 어려운 길을 가 주었으면 한다. 이 땅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시편 110:3) C. 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고백한 것과 같은, 험난한 길을 자원하기를 기도한다. “소년은 안전을 택하지만 남자는 고통을 택한다.”

#### 4. 맺는 말

나는 가능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고지대나 미답지에 도전해 주기 바란다. 거기에도 할 일이 많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한다. 그러나 고지대와 미답지는 비전과 야망을 혼동하여 자기의 영광과 세상 권세만을 드러내기 쉬운 곳이므로,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incarnation spirit)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주기를 바란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무비전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다.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모두 맡길 용기가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저지대로 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저지대를 걸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존 스톡의 전도서 주석이 충고하듯이, “비현실적인 목표로 자신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가까운 미래의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놓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계속 걱정만 하며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소박한 비전이라도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존 스톡트가 지적한 것처럼, “비전의 진정한 의미는 현실에 대한 깊은 불만족과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다니엘, 윌버포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철수의 경우도 같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36-40)

셋째, 다니엘 (다니엘 1:8-21), 다윗 (사무엘하 22:1-2), 세레 요한 (누가복음 3:1-22),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1-22)을 비롯하여 전영창 교장과 철수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본받아야 한다.

- 1) 각자 일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서로 다른 비전들이 있었다.
- 2) 저지대 비전을 가졌으며 그 비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 3)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꾸었다. 그래야 어려움이 닥쳐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 4) 혼자서는 실패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일하여 성공하였다.
- 5) 결단 번지르르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가졌다.
- 6) 끊임없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 실력을 갈고 닦았다.

7)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1)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를 지는 용감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의 야망과 출세욕을 버리고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지대로 가자.” 이것이 요즘 내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저지대 비전론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비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한다.